

# '학습태도' 좋은 학생 스마트폰 첫 사용 늦다

부모 자녀학습지원도 영향 미쳐  
교우관계도 좋을수록 일찍 사용  
대면 보다 스마트폰 관계 이뤄져

학습태도와 학습방법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시기는 학습상태와 교사, 부모의 관계에도 연관성이 있었다.

28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연구결과 이번 연구는 '사건' 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점에 대한 부모와 학생변인들의 영향을 연구했다.

사건 분석이란 특정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조사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서울교육중단연구 패널조사 363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점은 초등학교 6학년이 47.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1 23.31%, 초5 19.67%, 초4 5.13%, 중2 3.78%, 중3 0.67% 순이었다.

연구진은 최초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 별로 영향도를 분석했다. 1을 넘으면 그 확률이 낮아진다.

고1보다 낮으면 그 확률이 낮아진다.

연구 결과 학습태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점 승산비(영향력)는 0.877, 학습방법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점 승산비는 0.860이었다. 학습태도와 학습방법 수치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학의 경우 공부시간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우관계의 승산비는 1.232로 1보다 높았다.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학령기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대면 보다 스마트폰 관계 속에서 이뤄져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 변인에서는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점 승산비가 0.867이었다.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점의 승산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과거 기억을 떠올려 연구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학습태도, 교우관계, 부모 등 각각의 변인을 독립적으로만 연구했고 이번 연구가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점에 학생과 부모의 어떤 변인들이 영향력을 갖는 살펴보는 데 의의를 갖는다"며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스

연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17년	13만	11.7만
2018년	14만	12.7만
2019년	15.4만	14만

출처: 여성가족부



초등학생 3명 중 1명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위기"  
서울 초등생 937명 대상 설문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 기기를 사용했으며, 3명 중 1명은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회사 페덱스와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최근 서울지역 7개 초등학교 학생 937명을 대상으로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1%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해당 어린이들 가운데 66%는 등교를 할 때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79%의 어린이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33%는 보행 중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서 차에 치이거나 거의 치일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76%)이 남학생(56%)보다 높았다.

응답자 중 52%는 걸으면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항상 또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27%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1%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은미 페덱스 코리아 지사장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보행 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낮은 연령일 때부터 도로 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도로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와 엄마슨 캠페인은 페덱스와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Walk This Way)'의 일환으로 마련된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페덱스와 세이프키즈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보행 안전과 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뉴스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